

일본 한일터널 시찰단 부산 방문

등록일 : 2017-05-01

일본 한일터널 시찰단 부산 방문



일본 가나가와현 한일터널 시찰단 부산 환영식 모습

일본 가나가와현 한일터널 시찰단 부산 방문 환영식이 지난 4월 15일 부산 가정연합본부에서 열렸다.

금번 시찰단은 쿠니마츠 마코토 카나가와현의회 의원과 시의원 3명, 케이부 토루 제6지구장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시찰단은 지역구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한일터널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지도자들이다.

이날 환영식에는 부산지역에서 이용흠 한일터널연구회 회장과 서의택 동명대 이사장, 이장호 전 부산은행 지주회사 회장,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이영 전 부산광역시 의회의장, 강무길 부산광역시 의회의원, 서세욱 목요학술회 대표, 이종출 전 부경대 부총장, 류중우 한일터널연구회 사무총장, 이동욱 부경대 명예교수, 강경식 부산평화대사협의회장, 김형정 부산교구장, 평화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식은 이용흠·서의택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의 환영사, 김형정 부산교구장의 격려사, 쿠니마츠 마코토 카나가와현의회 의원과 케이부토루 제6지구장의 답사, 자매결연 및 선물교환, 단체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부산협의회장은 시찰단에게 한국을 대표해 평화대사 배지를 전달했다.

시찰단은 한일터널 기종착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과 경유지 대마도 등 답사를 통해 한일터널 건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부산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한일터널 실현을 통한 한일관계 회복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양국의 시찰단 교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성열 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